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13 2025.01.15

Executive Summary

- 지난주 증시는 CES 이벤트 소멸과 고금리/강달러 여파로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
- 이번주 공개되는 물가지표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경계감으로 금리 변동성 확대 불가피
- 연초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최상위권. 단, 강달러 완화 전까지 박스권 탈피는 어려워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고금리와 강달러로 밸류에이션 부담↑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견조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 금리가 상승한 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CES 이벤트 소멸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도 증시의 하락 압력을 높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뉴스 플로우가 수시로 유입된 점도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전주비 각각 10.1bp, 16.2bp 상승한 4.38%, 4.76%로 마감했다. 달러인덱스(DXY)는 전주대비 0.7p 상승한 109.9p에 마감하면서 6주 연속 상승했다. (2025. 1. 10,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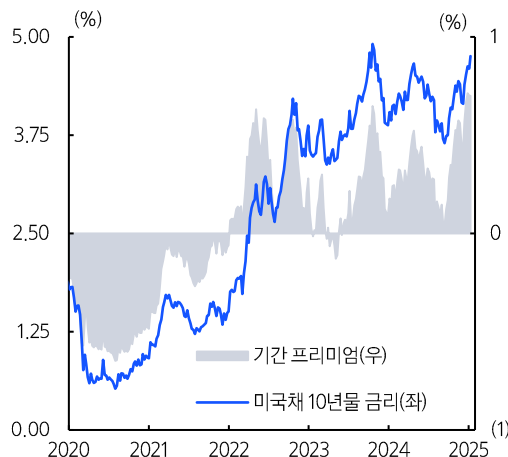
고용 호조 및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Good is bad' 국면

주 초반 공개된 12월 ISM 서비스업 PMI 내 가격지수가 전월비 6.2p 급등한 64.4p를 기록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했다.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비 25.6만 명 증가해 예상치(16.5만 명)를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이 전월보다 0.1%p 하락한 4.1%를 기록하면서 선물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후퇴했다. 주 후반 발표된 1월 미시간대 향후 1년과 5년 기대인플레이션(예비치)이 12월 2.8%와 3.0%에서 1월 3.3%, 3.3%로 급등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시장금리는 크게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데, 물가 불안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정책 불확실성(관세)과 투자심리 약화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시장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림 1].

이번주는 주요 물가 지표 및 금융주 실적 발표 등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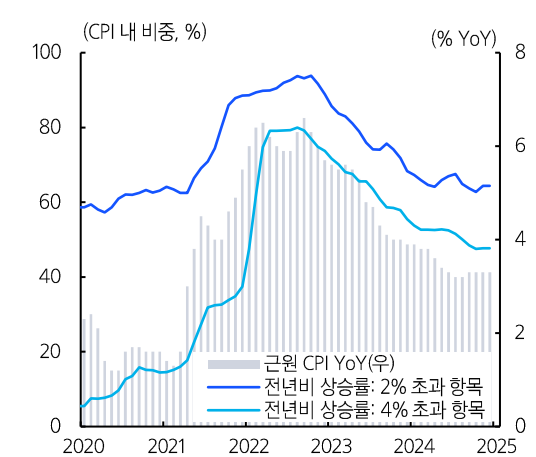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수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생산자물가지수(PPI, 1/14), 소비자물가지수(CPI, 1/15), 소매판매(1/16) 산업생산(1/17) 등 주요 지표들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그림 2]. 또한, 블랙록,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1/15)와 TSMC(1/16)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통위(1/16)도 확인 대상이다.

[그림1] 정책 불확실성+물가 불안: 금리↑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12월 CPI 내 물가압력 확인 필요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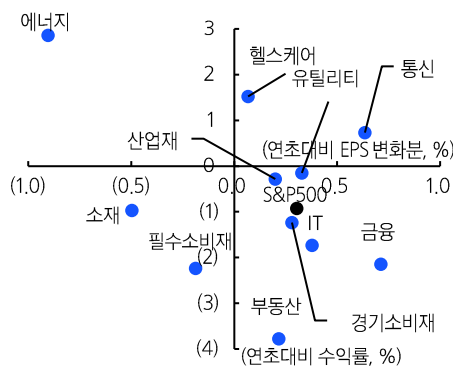
금융주 실적발표 :
비이자이익 개선 여부
확인 필요

미국 증시는 이번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한편, 지난주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신용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신용(대출수요)은 전월비 연율화 기준 1.8% 감소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신용은 9월 +0.7%, 10월 +4.1%, 11월 (-)1.8%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는 금융주들의 순이자이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수혜 기대로 대선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M&A와 같은 비이자이익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1/20)을 앞두고 향후 이익 기대감 재차 강화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그림 3].

트럼프 취임식(1/20)까지
국내외 증시는
보합권을 기본으로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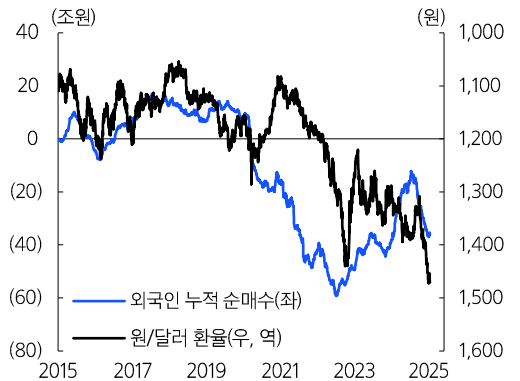
한편, 견조한 고용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여파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1회까지 축소되고, 금리 동결 확률은 29.4%까지 상승했다(CME Fed).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더라도,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지수 상승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코스피는 올해 들어 4.8% 상승해 주요 증시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1/10 기준). 연초 들어, 미국 증시 부진으로 투자 대안처를 찾던 외국인 자금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국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을 순매수한 결과다. 하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한 코스피는 강달러 압력 완화 전까지 추세적인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그림 4].

[그림3] S&P 500: EPS & 수익률 분포도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코스피 외국인 누적순매수 및 환율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S&P500 데일리커버드콜OTM (종목코드:0005A0)

S&P500 데일리 콜옵션(1% OTM) 100% 매도 전략 월배당 ETF

- 매일 1%까지 시장 상승 참여+옵션 프리미엄 수취 추구
- 연간 분배한도 최대 15%(월간 1.25%), 옵션 프리미엄 분배한도 초과분은 재투자
- 총보수 :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2 Kodex 미국S&P500금융 (종목코드:453650)

미국 금융업을 대표하는 은행, 카드, 보험, 투자회사 74개 종목에 모두 투자

- S&P 500 기업 중 금융 섹터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
- 주요 투자 대상 : Berkshire Hathaway, JPMorgan, Visa, Mastercard 등 74개 종목
- 합성총보수 : 연 0.3878%,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2102% 발생, 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종목코드:498400)

코스피200 상승참여 + 타겟 위클리 콜옵션 매도 ⇒ 월중배당

- 탄력적 옵션 매도 비중 조절로 상승 참여 + Monthly 대비 높은 옵션 프리미엄
-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와 코스피200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로 절세 효과 UP
- 총보수 :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 2025년 1월 14일 기준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